천칭 풀무

발풀무를 한층 더 발전시킨 형태인 천칭 풀무는 양발로 좌우 풀무를 번갈아 밟는 시소 방식의 구조가 특징입니다. 이토하라 가문에 전해지는 역사 기록서인 『철산구기(鐵山舊記)』에 따르면, 이 기술을 처음 사용한 것은 1691 년의 일이었습니다.

3, 4 일에 걸친 제련에서 풀무를 계속 밟아야 하는 고된 작업은 반코라 불리는 노동자가 담당했습니다. 반코는 교대로 풀무 중앙에 서서 움직이는 판자 위에 양 발을 올려놓습니다. 매달려 있는 밧줄을 잡고 한 발 한 발 체중을 실었는데, 그렇게 나무 페달을 밟으면서 용광로로 공기를 불어넣었습니다. 용광로와 풀무 사이에는 흙벽을 쌓아 높이가 2m 에 이르는 뜨거운 불길에서 반코를 보호했습니다. 풀무는 용광로를 사이에 두고 2 기가 있었는데, 한쪽에서는 용광로 반대쪽에 있는 사람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기에 작업원들은 종종 노래를 부르면서 제련이 이어지는 긴 시간 동안 속도(와 사기)를 유지했습니다.

실물 크기와 동일한 이 풀무를 실제로 밟아 보고 반코가 했던 일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. 체험 시에는 넘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줄을 잡고 이용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